Entertainment p/24

metro

메트로 2012년 11월 22일 목요일 제2615호

News p/02

멈춘 버스 속터지는 시민들

metro

메트로 2012년 11월 22일 목요일 제2615호

Sports p/29

이시영 복싱 국가대표 도전

유노윤호·고아라 '핑크빛 모드'

SM 10년차 동료로 지내다 올해초부터 '연인' 발전
춤 가르쳐주자 콘서트 응원 화답 등 스타 커플 탄생

연예계 최고 핫 스타 커플이 탄생했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10년 지기 동기인 동방신기의 유노윤호(26)와 배우 고아라(22)가 1년째 열애 중이다. 복수의 연예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친오누이 같은 돈독한 사이를 이어 오다 올해 초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들은 일부 최측근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고, 가요계와 영화계 극소수 지인들은 공공연한 비밀로써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을 지켜봤다.

유노윤호는 어린 시절부터 험든 연예계 생활을 해오며 배우와 여자로서 성숙해가는 고아라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동료 이상의 감정을 느꼈고, 고아라는 여러 위기를 헤쳐가면서도 최고의 아이돌 그룹을 이끌어 온 유노윤호의 책임감 있는 모습에 매력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보아 ... 소속사 동료들과 주로 어울리며 가장 가까운 동료로서 서로에게 힘이 돼 왔다. 특히 올해 초 연예계 생활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됐고, 바쁜 가운데 각별한 애정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일과 사랑을 모두 쟁취했다.

동방신기는 2인조로 재편한 이후 처음으로 1월 일본 아레나 투어에 나섰고, 55만 관객 동원이라는 K-팝 공연사에 전무한 기록을 세웠다. 고아라는 1월 영화 '페이스 메이커'와 2월 '파파'의 여주인공으로 3년 만에 연기 활동을 재개해 한층 성숙한 여배우로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의 동료애는 오래전부터 남달랐다. 2009년 유노윤호의 드라마 데뷔작인 '맨땅에 헤딩'에 남녀 주인공을 맡아 풋풋한 연인의 모습으로 사랑받았다. 당시 많은 시청자로부터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종방연 때는 유노윤호가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는 고아라를 따뜻하게 위로하는 등 든든한 선배이자 동료의 모습으로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파파'에서 춤·노래 등 다재다능한 연기를 보여줬던 고아라는 "유노윤호가 극중 필요한 춤을 가르쳐 줬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고아라는 에프엑스 멤버인 빅토리아·엠버와 최근 동방신기 서울 콘서트를 관람하며 열렬히 응원하기도 했다.

유노윤호는 2001년 SM 연습생을 시작으로 2003년 말 동방신기로 데뷔했다. 동방신기는 최근 월드 투어를 시작했고, 내년 4월 일본 5대 돔 투어를 앞두고 있는 등 아시아 최정상의 아이돌 그룹으로 인기를 이어오고 있다.

고아라는 2003년 2월 SM에 들어가 그해 만 14세의 나이로 청소년 드라마 '반올림'의 주인공을 따냈고, 지금까지 'SM 1호 배우'라는 상징성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SM 관계자는 두 사람의 교제 사실에 대해 "드라마에 함께 출연하던 당시 그런 소문이 돌긴 했지만 지금은 교제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유순호기자

문-안 TV토론 (야근)

의혹 못밝힌 급발진

정부 2차조사 결과도 "차량 결함 발견 못해"

끝내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차량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지난해 11월 5일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차량인 'BMW 528i'의 기계적 결함 여부를 조사했지만 기계적 오작동을 일으킬 만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21일 발표했다.

엔진제어장치(ECU)에는 사고 당시 ▲속도 214㎞/h ▲제동등 점등 ▲바퀴잠김방지장치(ABS) 작동 등으로 기록돼 있었으나 차량에 사고기록장치(EDR)가 설치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작동 시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차량에 부착된 엔진제어장치(ECU)와 전자식 가속제어장치(ETCS) 등 6종을 사고 차량과 같은 BMW 528i 차량에 장착해 급가속과 제동, 전자파 내성 등을 시험한 결과에서도 기계적·전자적 이상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추가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영상 기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시고 전후 20초 동안 블랙박스 영상이 누락된 경위를 확인 중이다.

하지만 운전자가 사고 전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사고 순간에 제동등이 점등하고 ABS가 작동한 기록이 확인된 만큼 제작사인 BMW에 명확한 기술적 소명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박성훈기자 zen@

전기요금 16만원 못내 '전류제한' 받은 할머니·손자

촛불 켜고 자다 화재 참변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놓고 지던 조손가정 주택에서 불이 나 할머니와 손자가 숨졌다.

21일 오전 3시50분께 전남 고흥군 도덕면 주모(63)씨 집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이 불로 주씨의 아내 김모(62)씨와 외손자(6)가 숨졌다. 주씨도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다.

불은 30㎡ 크기의 목조 주택 내부를 모두 태우고 1시간20여분 만에 119에 의해 진화됐다.

주씨는 경찰에 "잠을 자다가 머리 쪽에 불이 붙고 있어 마을 사람들에게 '불이야'라고 외친 뒤 다시 들어갔더니 아내와 손자가 침대 위에서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주씨 부부는 전기요금 15만7000원을 내지 못해 20여 일 전 전류 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별다른 난방도 하지 않고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새벽에 손자가 소변을 보고 싶어해 잠시 촛불을 켰다가 끄지 않은 것 같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유리기자 grass100@

"버스 달려 주세요" 90도 간청 21일 서울시청에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이 서울 시내버스 66개 업체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운수업계 관계자들에게 버스 운행 중단 중지를 당부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보기만 해도 군침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제 5회 서울 국제 푸드 앤 테이블웨어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갖가지 음식의 화려한 한정식을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의 발' 결국 올스톱

전국 버스 오늘부터 운행중단… "출근 어떻게 하라고" 애꿎은 시민들 분통

22일 전국 노선버스의 운행 전면 중단으로 출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21일 오후 3시를 기해 버스 파업이 끝날 때까지 대체 교통 수단을 투입하고, 교통수요를 분산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 지하철 운행연장·택시부제 해제 등 비상대책 마련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하철이 집중 배차되는 출퇴근 시간대를 각각 1시간씩 연장 운영해 하루 82회씩 증회 운행하기로 했다"면서 "25개 자치구별로 총 400대의 셔틀버스를 투입,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정류장과 주요 지하철역으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 7~10시와 오후 6~9시까지 지하철이 집중 배차되며 기존보다 막차 시간도 1시간 연장돼 종착역 기준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운행된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1만5800대의 택시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해 운행을 허가하고, 승용차 요일제와 기로변 버스전용차로도 일시 해제한다.

아울러 시는 출퇴근 시간 집중되는 이용객 분산을 위해 시내 공공기관과 공기업 및 대기업에 따라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본부장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topis.seoul.go.kr)와 모바일웹(m.bus.go.kr), 트위터(@seoulbyeongrag)와 주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시내버스 파업의 실시간 상황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택시의 대중교통 수단으로의 편입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운행 중단과 노선버스 사업권 반납 등의 집단 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동희기자 eleven@metroseoul.co.kr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여성 41.7% 역대 최고

사법시험 여성 합격자 비율이 41.7%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21일 법무부가 발표한 올해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506명 가운데 남자는 295명(58.3%), 여자 211명(41.7%)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 37.3%보다 4.4%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여성 합격자 비율은 사상 최고 수준이며 여성 비율이 40%를 넘어선 것은 2010년 41.5%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수석 합격은 서울대 경제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호영(22)씨가 차지했다.

최고령·최연소 합격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동훈(42)씨와 서울대 경영학과 2학년생 박지원(20)씨였다.

/장윤희기자 unique@

카페베네 옆 카페베네 사라진다

500m 이내 신설금지

앞으로 커피전문점을 낼 때는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내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또 매장 인테리어 등을 고칠 때는 가맹본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100개 이상, 매출액 500억 이상인 가맹 본부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커피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 기준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다.

모범 거래 기준은 먼저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내에는 신규 출점을 금지하되 하루 유동 인구가 2만명이 넘는 상업지역에서 주변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김지환기자 bizyhan@

카드포인트로 지방세 낸다

서울·부산 이어 다음달부터 전국 확대 시행

올 연말부터는 서울과 부산 외 다른 지자체에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납기 개시일인 다음 달 14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도 자동차세와 취득세, 재산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삼성과 롯데, 신한과 외환, 시티와 NH, KB와 BC, 제주와 하나 SK 등 10개로 수협과 광주, 전북 등 3개사도 내년 상반기부터 쓸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내려면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서비스나 각 지자체 세무민원실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확인하고 카드 결제를 하면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체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은 1조 6000억원이다. 행안부는 또 내년 6월부터는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나 공과금 수납기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하나기자 lazyhand@

아버지뻘 시골 노총각 신랑과 동남아 어린 신부 '이젠 옛말'

제자리 찾는 국제결혼

아버지뻘되는 시골 노총각과 동남아 어린 처녀의 국제 결혼 공식이 깨지고 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1년 다문화인구 동태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혼인 부부 연령차는 9.5세로 2010년 10.3세보다 0.8세 떨어졌다.

남성의 초혼 나이는 36.1세로 0.4세 낮아진 반면 여성은 26.6세로 0.4세 높아졌다.

남성이 10세 이상 연상인 부부는 48%로 2010년 대비 2.9%포인트 감소했다.

◆ 45세 이상 남성, 24세 이하 여성 비중 크게 줄어

40세 이상 남성의 다문화 혼인 비중은 2010년 47%에서 45.3%로 줄었고 특히 45세 이상 비중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반면 결혼적령기인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비중은 각각 11.9%, 16.8%로 늘어났다.

여성의 경우도 24세 이하의 비중은 33.2%로 감소한 반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비중이 증가했다.

한편 다문화 부부의 결혼생활기간은 평균 4.9년으로 한국인 사이 평균 결혼기간인 14.4년에는 못 미치지만 2009년 4.1년, 2010년 4.7년에 이어 증가하는 추세다.

이재원 통계청 인구동계과장은 "나이 많은 한국 남성과 어린 외국 신부의 혼인 비중이 감소하고 결혼적령기의 혼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각종 규제로 특히 국제결혼의 부작용이 줄어 통상적인 혼인 형태를 찾아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간절한 바람 21일 울산대학교 앞에서 열린 청년희망만민 제작 행사에 참여한 한 대학생이 대선 후보에 한마디 코너에 글을 적은 후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비멸균 의심 임플란트' 세균 검출 안돼

비멸균 임플란트로 의심받은 제품에서 세균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모 제조사의 임플란트 고정체(몸통에 심는 하단 부위)가 비멸균 상태로 유통됐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제품 240개를 치과에서 수거했다"면서 "검사 결과 세균이 검출되지 않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식약청은 이 회사가 지난해 3월 4일 이후 생산한 제품 4만5025개를 대상으로 판매 금지와 회수를 단행해 미사용 제품 3만3878개를 수거해 조사를 벌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이 제조사가 허가사항을 무단으로 변경해 임플란트를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할 계획"이라며 "다행히 무허가 제품 982개는 전량 회수돼 환자에게 쓰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임플란트 제품 멸균여부검사명령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희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754> 글·그림 박상률

대처 영국 총리 사임

1990년 11월 22일 11년간 3차례나 총리직을 연임했던 영국의 마거릿 대처가 사퇴했다. 유럽 통합에 대한 비타협적 태도로 당 지도부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영국 최초의 여성 당수(보수당), 유럽 최초의 선거에 의한 여성 총리가 됐던 대처는 강력한 지도력과 분격한 통치로 영국병을 치유해 '철의 여인'이라 불렸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먹기불안 실업자 수는 3배나 늘었으며 긴축재정으로 수많은 회사가 파산했다.

문학으로 강정마을에 평화를 21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 제주기지사업단 앞에서 열린 '강정마을 평화도서관 제안식'에서 작가협동 1213 의 문인들이 도서를 해군 등에 기증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 잘못으로 '벤조피렌 참기름' 유통

담당 공무원의 직무 태만으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과다 들어간 참기름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A씨는 지난해 3~12월 식용유지류 65건에 대한 벤조피렌 검사를 수행하며 실험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 문제를 발견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기준치 2.0㎍/㎏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다량 유통됐고 특히 14.385㎍/㎏의 벤조피렌이 나온 참기름은 2만4459병, 12.4525㎍/㎏이 검출된 참기름 4만4064병이 유통됐다.

감사원은 A씨를 징계하고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은 모두 회수해 폐기하라고 통보했다.

/장윤희기자

안, 단일화 룰 협상 지지부진에 '안 풀리면 두 사람이 만나서 풀어야'

문·안 담판 가능성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 간 담판을 통한 단일화 룰 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 후보는 21일 한국방송기자협회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문-안 후보) 두 사람이 만나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 후보는 "협상팀에 냉정·객관·공정하고 실현가능하며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달라는 가이드 라인을 만했다"면서도 "최종 협상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두 후보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두 후보의 담판 대상 범위는 단일화 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는 '후보 양보 협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단일화 방식 협의팀은 이날도 9시부터 논의를 재개했다. 하지만 3시간에 한번씩 정회를 거듭하며 진통을 겪었다. 후보 간 담판 방식이 제기되는 이유다.

시점상 단일화 방식 선택지에 여론조사만 남은 상황에서 여론조사 설문 문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 후보 측은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를, 안 후보는 경쟁력을 묻는 문구 작성을 각각 주장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적합도 등은 개념 자체가 모호해 여론조사 불확실성이 크다"며 "A와 B, A와 C 식의 실제 대결을 물어야 혼란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은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은 "A와 B라는 직접 비교 대상을 C라는 간접비교대상을 통해 측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민지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교육분야 5대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박근혜, TV토론 나랑 1대1로 붙자"

朴, 단독토론 26일로 연기할 듯

23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단독 TV 토론이 26일로 미뤄질 전망이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보다는 주 초반인 월요일 밤이 홍보 효과를 거두기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22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서는 박 후보가 연이틀 TV를 통해 유권자에게 노출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1일 밤 벌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토론의 이슈에 선점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찍감치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TV 토론 개최 시기에 대해 아무래도 26일이 좋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면서 "방송사 측과 23, 26일 안을 놓고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박 후보에게 일대일 TV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심 후보는 "박 후보가 진정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 검증을 위한 토론을 원한다면 일대일 맞짱 토론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채윤정기자 ■ ewon@

김무성 "노무현, 부정 감추려 자살"

"촛불집회 조반에 제압했어야"

김무성(사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부정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 자살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본부장은 21일 당사에서 열린 농어업경쟁력강화혁신특위 발대식에서 "권력형 부패의 사슬이 끊임없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지 않았나? 이 대통령이 공권력을 제대로 집행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이가 박아놓은 대못을 빼낼 시기에 촛불집회 초기 진압에 실패해 지지율이 바닥이었다"며 "촛불집회 당시 대통령이 공권력을 갖고 확 제압해버렸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 은행 지점보다 더 큰 금고가 있었다"며 "이런 권력형 부정부패 사슬을 끊을 때가 됐는데 그걸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라고 강조했다.

/채윤정기자

"일터 사망자 60% 이상은 5가지 재해 때문"

5대 다발재해 중 하나를 차지하는 추락재해는 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 사진은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

메트로신문–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예방 공동기획(下)

작업관리·기술·교육적 원인으로 사망사고 발생
리모델링비 1억 지원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지난 9월 전북 정읍의 한 한지 부품 제작 공장. 용광로 쇳물 운반 기계인 '래들'이 기계 결함으로 뒤집히면서 야간작업 근로자 2명이 쇳물을 뒤집어쓰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새로 설치한 기계를 충분한 시험가동 없이 작동시키면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지난 6월 경기도 양평의 한 공사 현장. 건물 지붕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지붕 자재로 사용된 골판 이음이 파손되면서 7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공사장에는 폭 30㎝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업무 중 사망한 근로자 수는 모두 1383명이다. 공단 측은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6명은 추락·충돌·기계 협착 등의 5대 다발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끊이지 않는 사고성 사망재해의 주요 원인을 3가지로 분석했다.

우선 작업관리적 원인으로 미흡한 작업 준비, 부적절한 인원 배치, 작업 수칙 미제정 등이다. 다음은 기술적 원인으로 작업장 내 구조물과 기계가 불량한 경우다. 장시간 근로 등의 부적절한 생산 방법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원인이 있으며 작업 방법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교육, 안전 지식 부족, 경험 미숙 등이 해당된다.

◆ 산재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2013년 산업재해를 막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위험성 평가 사업을 활성화해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을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도를 기존 제조·건설 부문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사업장의 위험불감증 해소 및 안전행동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당 1억원 한도에서 작업환경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며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작업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클린사업도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재 예방활동이 우수한 소규모 사업장 대상의 산재보험요율 할인제도 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산업재해는 개인과 가정의 행복뿐 아니라 기업·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산재 걱정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지하철역서 전통춤 한마당

서울메트로가 외국인이 많이 찾는 경복궁역에서 한국 전통무용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공연을 마련한다.

서울메트로는 22일 오전 11시30분부터 3호선 경복궁역에서 한국 고유의 전통무용인 고전무용, 부채춤, 북춤 공연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경복궁역에서 한국 전통무용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에는 멤지대 예술대 성경숙 교수와 제자들이 나서 고전무용, 부채춤, 북춤 등을 선보인다.

외국인들이 한국 전통무용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영어, 중국어 통역사와 수화 도우미도 초청했다.

경복궁역은 역사가 흐르는 경복

오늘 3호선 경복궁역서 고전무용·부채춤 등 공연

공연 이력는 특화 테마를 가지고 시민들이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을 직접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문화체험행사, 집안의 조상이나 어르신에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가르침인 가훈 무료로 써주기 등 테마에 걸맞은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금복권520 제73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4조	565722
		5조	492793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177267
4등	100만원	각조	65518
5등	2만원	각조	558
6등	2000원	각조	35, 79
7등	1000원	각조	6, 1

조석 차관 '에너지 토크 콘서트'

조석 지식경제부 차관이 최근 에너지 수급불균과 관련 정책에 대해 위즈와 대화를 통해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넓히고 있다. 조 차관이 21일 원광대학교에서 250여 명의 대학생에게 막막하고 어려운 에너지 정책을 친근하고 쉽게 설명하고 있다. /원자력문화재단 제공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1-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용학
광고국장 직대	김윤철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60
독자문의	02)721-9852

헉! 직원 평균연봉이 5억

서던 오하이오 의료센터 미국 최고급여기업 선정

직원 평균 연봉이 무려 5억3530만원에 달하는 '꿈의 직장'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은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지급한 기업 25곳 중 상위 10곳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1년 미국에서 직원들에게 가장 많은 연봉을 지급한 기업은 '서던 오하이오 의료센터'로 나타났다. 이곳의 직원 평균 연봉은 49만647달러(약 5억3530만원)에 ▲달한다. 서던 오하이오 의료센터는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 36위에 꼽히기도 했다.

2위는 법무법인 뱅행 맥커천으로 평균 연봉은 22만8851달러(약 2억4968만원)다. 특히 지난해에는 직원 1인당 3만5000달러(약 3819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특별 보너스를 지급해 전 세계 직장인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이어 3위는 법무법인 알스톤 앤버드로 20만1233달러(약 2억1955만원)를 지급했고 법무법인 퍼킨스 코이는 18만9409달러(약 2억665만원)로 4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에너지 탐사 채굴 기업인 EOG 리소시스, 데번 에너지, 원티 메이트 소프트웨어, 히티지 데이터 시스템즈, 보스턴 컨설팅그룹, 오토데스크가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도쿄에 47억 순금 트리 등장

21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의 한 보석상점에 순금 크리스마스 트리가 전시됐다. 2.4m 높이의 트리는 디즈니 작품에 등장하는 60개 캐릭터로 장식돼 있다. 가격은 3억5333만엔(약 47억원)이다. /AFP 연합뉴스

日 '대표 극우' 아베 극우공약 발표

다케시마의 날 국가행사 종군위안부는 반론 강화

아베 신조(사진) 일본 자민당 총재가 21일 '일본을 되찾는다'는 제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자민당이 다음 달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국방비를 확충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공약에 따르면 자민당은 헌법 해석을 바꿔 동맹국이 공격받는 경우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확히 하고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한다.

특히 자민당은 매년 시네마현이 실시해온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행사로 승격하기로 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다는 반론을 강화하기로 했다.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현재 1%인 인플레이션(물가) 목표를 2%로 설정하고, 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행을 동원한 '대담한 금융 완화'도 실시하기로 했다. /조선미기자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T팬티 선물하면 마냥 좋아할까

도심 빌딩 옥상 야외화장실 등장

태블릿 됐다가 노트북 됐다가

에이서 하이브리드 PC 아이코니아 탭 W510

태블릿과 노트북의 특징을 동시에 갖춘 하이브리드 태블릿이 나왔다.

글로벌 PC 기업 에이서(www.acer.co.kr)는 인텔 아톰 프로세서와 윈도8 운영체제를 탑재한 '아이코니아 탭 W510'을 21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인텔의 새로운 아톰 프로세서 'Z2760'을 탑재해 부드러운 터치감과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한다. 64GB SSD 저장장치와 2GB 메모리로 성능도 빵빵하다.

특히 윈도8 운영체제를 탑재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윈도우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최대 295도 회전이 가능한 키보드 도킹스테이션도 사용의 편의성을 더한다.

21일부터 인터넷 쇼핑몰 롯데닷컴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하며 가격은 79만9000~89만9000원이다.

/하국영기자

'약정의 노예들' 해외구매로 탈출 러시

'냉장고 한대값' 스마트폰 익스팬시스·이베이에선 국내보다 수십만원 저렴 요금제 맘대로 선택 가능

EXPANSYS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휴대전화 판매량은 2535만 대, 지난해에는 2673만 대로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1년에 한 번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삼성과 애플 제품의 가격은 냉장고 한 대와 비슷한 100만원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평균 2년이라는 기간 통신사의 요금제 '약정 노예'로 묶이 있을 수밖에 없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이지만 약정 기간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짐은 더 크다.

그렇다면 약정 노예의 사슬을 끊는 방법은 없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단말기를 장만한 뒤 약정 없는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다. 단말기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현재 안드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구매 대행 서비스다. 해외에서 팔리고 있는 물건을 이들 업체를 통해 들여오는 방식이다.

◆ '갤럭시 노트Ⅱ' 30만원 저렴

대표적인 사이트가 '익스팬시스(www.expansys.co.kr)'다. 지난해 국내와 해외판이 다르게 출시 됐던 갤럭시 노트를 국내 소비자들이 이곳을 통해 해외판을 대거 구매해 유명세를 탔다. 여전히 공식 수입되지 않고 있는 아이폰5를 이곳에서는 살 수 있다. 갤럭시 노트Ⅱ는 국내 공식가보다 30만원가량 저렴하다.

프리미엄 제품뿐 아니라 LG 옵티머스 L3(14만1417원), 소니에릭슨 '엑스페리아 Go'(25만4665원), 소니 '엑스페리아 솔라'(25만4665원), HTC '디자이어 X'(35만3756원) 등 중저가 제품도 만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베이와 같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다. 물론 한글 지원이 되지 않아 초보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블랙프라이스데이와 같은 때는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3G-LTE 여부 확인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가장 먼저 신제품 여부와 브랜드를 확인해야 한다. 또 어느 나라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언락' 버전 여부, 이동통신 서비스가 3G 혹은 4G(LTE)인지도 파악해야 한다.

더불어 이베이는 많은 개인 공급자가 모인 곳이기 때문에 불량 판매자를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다. 피드백, 누적 판매건수, 배송비, 예상 배송일 및 제품 상세 설명을 주의 깊게 살피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또 '페이팔'(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구매 전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사이트마다 AS 및 환불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일시불 납부가 부담인 경우 비자나 마스터 카드로 결제 후 직접 해당 카드사에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한손으로 '7인치 세상' 핸들링 가뿐

아이패드미니 사용 후기 **무게 고작 308g · 120만 화소 전면카메라 매력적**

9.7인치 태블릿PC '아이패드'의 가장 큰 아쉬움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점이었다. 한 손으로 들고 있기 힘들 뿐만 아니라 10분만 사용해도 어깨가 뻐근해지기 때문이다. 아이패드를 구매하며 다짐했던 출퇴근 시간 전자책 독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난 2일 애플이 한국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7.9인치 '아이패드 미니'는 이런 불편함을 한방에 해결해줬다. 기존 시리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8g의 무게 덕분에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있어도 무겁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두께도 7.2㎜에 불과해 얇은 사전 한 권 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한 손만으로도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 가능해 복잡한 버스 안에서도 손잡이를 잡은 채 이용할 수 있어 무척 편했다. 특히 조작을 위해 화면을 터치했는지 잘못 터치했는지를 척척 구분하는 기능을 채택해 오작동을 막아주는 섬세함도 눈에 띈다.

크기가 줄어들었는데도 27만 개가 넘는 아이패드 전용 앱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사진 편집 앱 '아이포토', 동영상 편집 앱 '아이무비', 문서 작성 프로그램 '키노트' 등은 물론이고 전자책 용 리e북, 내비게이션 'T맵' 등도 무리 없이 돌아간다. 특히 음악 제작 프로그램 '개러지밴드'의 블루투스 연결 기능을 이용하면 아이패드·아이폰 등과 합주도 가능해 가족모임 파티에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전작에 비해 향상된 카메라 기능이다. 뉴아이패드의 30만 화소에 비해 대폭 업그레이드된 120만 화소 전면 카메라 덕분에 셀프카메라는 물론 페이스타임을 이용할 때에도 선명한 화질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해외 출장 중에도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국내에 있는 가족과 무료 영상통화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점도 무척 매력적이다.

옥에 티를 꼽으라면 해상도가 1024x768에 불과해 웹서핑 중 글씨가 다소 선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화면이 작아져 HD 영화를 보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다.

일주일 동안 아이패드 미니와 함께 출퇴근 시간을 보내다 보니 '7인치 시장이 없다던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고집을 꺾었다면 더욱 좋았을 텐데'란 생각이 갈수록 깊어졌다.

/하국영기자 kmlee@

연봉 1억 5천, '보험왕'에게 듣는다!

차티스손해보험 5년차 TM 강동균씨에게 듣는 연령별, 건강별 [보험선택의 기준]

'올해의 영업실적왕' 4회 비법공개

20~70대 연령층 1:1 상담전화 통해
연령에 따라 건강고민 한 눈에 보여

차티스손해보험의 5년차 TM 강동균씨(33세) '올해의 영업실적왕'을 4회나 기록한 베테랑 TM이다. 평소 다정다감한 말투와 넉살 좋은 성격이 고객 전화상담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하루 전화상담은 무려 70여 통. 연령대도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다. 전화상담을 하다보면 마치 부모님의 고민 같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 저절로 공감이 간다고. 다년간 전화상담을 통해 나름대로 터득한 그만의 연령별, 건강별 보험선택 기준을 들어본다.

이렇듯 강동균씨가 지금껏 차티스 TM으로서 전화상담을 한 고객수만 따져 본다면 1만여 명이 넘는다. 다년간에 걸친 경험을 통해 더욱 깨닫게 된 것은 건강의 소중함과 철저한 건강대비이다. 고객들과 상담전화를 하다보면, 한결같이 자신의 건강대비뿐만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시부모님 건강을 챙기는 모습이 자신의 가족들 모습이 떠오른다고.

연령이나 건강별로 준비해야하는 건강대비

이제는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어느 연령대인지 감이 온다는 강동균씨. 고객들과의 1:1 전화상담을 통해 연령대별, 건강별 고민과 대비책이 한눈에 그려지는 베테랑이다. 그는 고객들의 건강 고민이 제각각 다른 듯 해도, 연령이나 건강별로 원하시는 보장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한다. 그만큼 각 연령별로 준비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대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과 건강대비 상담에 매진하는 그가 늘 당부하는 한마디가 있다고 한다. "건강 고민, 혼자만 하지 마세요. 보험가입에 대한 부담 없이 전화부터 하세요. 연령대에 건강에 꼭 맞는 건강대비책을 내 가족처럼 자세하게 알려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1:1 전화상담에 매진하는 그는 특유의 넉살과 재치로 자신의 부모님이나 친누님, 친형님과 대화하듯 차티스의 연령별 건강대비책을 제시한다.

40~50대 큰병 대비가 철저해야죠

주로 40~50대 고객분들은 자영업자 분들이나 직장인들, 주부님들이 많으세요. 남편이나 아내 건강 걱정하시며 꼼꼼하게 보장을 물어보시구요. 하나의 상품을 문의하시다가 여러 개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큰병이기는보험IV>으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대비

40~50대 고객분들께는 <큰병이기는보험IV>을 권해 드립니다.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같은 큰병엔 선택계약으로 진단비를 진단 즉시 각각 보장해 드리구요. 남자 분들의 경우엔 잦은 야근이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같은 큰병 대비를 본인들도 원하세요. 주로 남자분들은 본인 건강걱정은 물론이고 혹시나 큰일 생각 가족만 남겨질까봐 걱정 많이 하시죠. 그래서 40~50대 가장이라면 혹시나 모를 큰일에도 철저하게 대비하시라고 선택계약으로 사망보장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중년 건강대비 전화상담!

1577-6428

• 이 상품은 3년 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최대 80세까지(단, Active 보험은 9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50~60대 치매 대비 하셔야죠

주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연세쯤 되신 분들은 치매 걱정 제일 많으신데다 암 같은 큰병 고민도 크시더라구요. 게다가 평소 병원 갈 일 많으시니까 의료실비도 신경 많이 쓰십니다.

치매, 큰병, 의료실비 대비도 <명품부모님보험>으로

그래서 50~60대에는 차티스손해보험의 <명품부모님보험>을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장 걱정 많으신 치매 고민! 그게 다 가족들이 짊어져야 할 간병비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크시더라구요. <명품부모님보험>은 선택 계약으로 치매 간병비를 보장해 드리니까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여기에, 부모님들 또 다른 큰병 걱정 많으시잖아요. <명품부모님보험>을 통해 선택계약으로 암은 물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도 진단비를 진단 즉시 꼼꼼하게 챙겨 드리니까 큰병 걱정대비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이 들면 여기저기 다치기 쉬우니까 상해 입통원의료실비도 선택계약으로 꼼꼼하게 챙겨 드립니다.

가입 부담없이 친절상담

1577-6427

• 이 상품은 3년 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최대 90세까지(일부 담보는 8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0대 자식들 마지막 부담주기 싫어

연세가 꽤 있으신 70대 고객분들은 "내 나이에, 보험이 되나?"고 많이들 물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를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남겨진 자식들에게 부담주기 싫다시며 장제비 보험을 많이 찾으시죠.

75세까지 가입 가능한 <무배당명품장제비보험>

평소 나이 때문에 보험가입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차티스 <무배당명품장제비보험>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셔도 가입상담 후에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놀라시죠.

상해, 질병 사망보장에 평소 골절 진단비, 수술비도

<무배당명품장제비보험>은 혹시나 큰일 생길 경우 남겨진 유가족들의 장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은 부모님 마음을 위해 혹시나 모를 큰일에 상해 사망은 기본으로 보장해 드리고, 선택계약으로 질병 사망도 보장해 드립니다. 여기에 제휴된 전문 장제 서비스도 특별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니까 상조 서비스 고민도 함께 해결되구요. 아무리 장제비보험이 혹시 모를 마지막을 대비한 보험이라 해도, 평소 보장도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무배당 명품장제비보험>은 선택계약으로 평소 골절에는 진단비와 수술비도 각각 챙겨 드리니 자주 다치시는 노년에 꼭 필요한 보험이라 할 수 있죠.

75세까지 가입 가능

1600-3421

• 5년만기 자동갱신 상품으로 80세까지 보장가능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공통 고지 사항>

Nikkei (일본)
9222.52 (+79.88)

Hong Seng (홍콩)
21524.36 (+296.09)

Shanghai (중국)
2030.32 (+21.40)

Dow Jones (미국)
12788.51 (-7.45)

EXCHANGE RATE

달러	1082.00
엔 (100)	1318.55
유로	1380.52
위안	173.60

워크아웃 내몰린 청춘들

전체 신정자 5%대 감소 속 20대 연령만 늘어
중·고졸자 많아 '학자금보다 실업' 영향 분석

김장 담그는 금융맨들 21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사 등 국내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랑의 김치 페어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만들어진 1만4400kg 규모의 김장 김치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가구 등에 전달됐다. /연합뉴스

청년실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채무 조정으로 상환에 도움을 받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20대가 빠르게 늘고 있다.

21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프리워크아웃(1~3개월 미만 연체자 대상 채무 조정) 신청자가 전분기에 비해 10% 증가해 4446명으로 나타났다. 전분기(4~6월) 4019명보다 10.6% 증가한 규모다. 올해 1분기(1~3월) 4256명과 비교하면 4.4% 늘어났다.

특히 20대의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가 크게 증가했다. 20대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2분기 460명에서 3분기 559명으로 21.5%나 늘었다. 30대는 10.2%, 40대는 1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연령대별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연체자 대상 채무 조정) 신청자를 보면 20대만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3분기 1만7365명으로 2분기 1만8392명에 비해 5.6% 감소했다.

반면 20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2분기 1656명에서 3분기 1722명으로 4.0% 증가했다. 30대(-6.1%), 40대(-4.3%), 50대(-8.6%)와는 대조를 보였다.

이에 대해 신복위 관계자는 "워크아웃 신청자 가운데 중졸이나 고졸이 과반이다. 20대 신청자의 증가를 단순히 학자금 대출의 영향으로 풀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2년 10월 신복위 출범 이후 신용회복 지원 확정자는 올해 3분기까지 101만6091명으로 집계됐다.

/김재범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삼성카드, 코스트코에 수수료 2배 인상 통보

삼성카드가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수수료율을 두 배 이상 올려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수수료율 정상화의 일환이다.

21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비판을 한몸에 받은 코스트코에 현행 수수료율인 0.7%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 후반의 수수료율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삼성카드는 코스트코와 5년간 독점 계약을 맺고 다른 가맹점보다 현저히 낮은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왔다.

계약 기간은 약 2년6개월 정도 남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드사 최고경영자들에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원칙대로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상기자

"내년 경기회복 할것"
산업연구원, 3% 성장 전망

내년에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1%포인트 증가한 3.1%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21일 '2013 경제 산업 전망'을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 KIET는 세계경제 부진 완화에 따른 수출 회복, 유가 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을 성장 이유로 꼽았다.

이는 지난 5일 금융연구원의 예측(2.8%)보다 높지만 한국개발원(3.4%), 기획재정부(4.0%), 국회예산정책처(3.5%), 한국은행(3.2%)에 비해 낮다. KIET는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세가 확산되는 등 성장률은 '상저하고'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상훈기자

IMF 이후 재벌 영업이익 3배 증가

국내 10대 재벌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들어선 1997년 이후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CEO(최고경영자)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말과 2011년 말 국내 10대 그룹 대표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총 영업이익은 11조원에서 47조원으로 318.2%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매출액은 15년 사이 92조원에서 625조원으로 579.6%, 총자산은 111조원에서 613조원으로 449.0% 각각 늘어났다. 부채비율은 349.2%에서 119.4%로 229.8%포인트 감소했다.

10대 재벌 대표기업은 각 집단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 현대차, SK, LG전자, 롯데쇼핑, 포스코, 현대중공업, GS칼텍스, 대한항공, 한화 등이다. /박상훈기자 2kim

공룡조직 농협 '쥐꼬리 감원' 생색

농가감소 불구 임직원 2배 늘려놓고 "임원 10% 감축 계획"

과도한 제 식구 챙기기로 비판을 받았던 농협이 임직원 수 줄이기에 나섰다. 하지만 최대 10% 정도의 임원 감축만으로는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농협의 기반인 농가 인구가 줄어든 것과는 반대로 임직원을 크게 늘려온 형태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이달 말 각 지주회사와 계열사의 이사회를 열어 임직원 수를 감축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안을 결정키로 했다. 임원 수는 최대 1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 농협의 조직 확대는 우리나라의 농가 인구가 줄어든 것과 비교해 '거꾸로' 가는 행보였다. 농협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지난 1980년 1082만 명에서 290만 명으로 73% 줄었다.

반면 농협조합과 중앙회의 임직원은 같은 기간 3만7511명에서 8만907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농가 인구가 급감하면 농협의 임직원도 감소해야 하는데 오히려 조직 키우기에 급급했던 것. 자연스레 농협이 원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지난해 농가 평균 소득이 3015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농가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농협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7010만원의 고소득을 자랑해 '농협을 위한 농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시내기자

한국인의 true friend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2-07844호(2012.11.13~

“펀드베테랑이 제안하는 손쉬운 해외채권 투자방법”

글로벌 분산투자 채권펀드	글로벌 이머징 채권펀드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펀드	글로벌 투자적격 채권펀드	글로벌 물가연동 채권펀드

[판매사] 한국투자 증권

펀드베테랑 - 한국투자신탁운용

02)3276-4700 www.kim.co.kr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재산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상품은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하시기 전에 환매방법과 보수 등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true friend 한국투자 신탁운용

"와! 산타마을" 롯데몰 김포공항이 연말을 맞아 동화 속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형상화한 포토존을 구성해 고객들에게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산타마을 이야기를 테마로 구성된 이번 포토존은 B1(지하 2층)부터 하늘정원까지 총 8곳에 선보인다. 사진은 롯데몰 김포공항 내 마련한 포토존 모습. /롯데자산개발 제공

10월 전월세 거래 급증

매매 감소 맞물려 전년대비 5.5% 늘어

주춤하던 전월세 거래가 가을 이사철 막바지인 10월에 늘었다.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난 것인데 매매가 줄어든 것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침체의 한 단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달 전월세 거래량(공개건수 기준)은 전국 11만5000건으로 전년 동월(113만2000건) 대비 5.5%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달(95만6000건)에 비해서도 20% 가량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실수요자들이 매매 대신 전세 거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은 82만5000건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7.0% 늘어났고, 지방은 2.3% 증가한 37만 건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은 59만3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4% 증가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60만2000건으로 1.2% 증가해 아파트 증가폭이 비(非)아파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은 지난 9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99㎡는 9월 4억4000만~5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10월에는 4억~5억3000만원으로 소폭 떨어졌다.

반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의 경우 9월 2억4000만~3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10월에는 2억5000만~3억9000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김재상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수요·교통·편의 다 갖췄네

신세계 '로제리움' 분양

신세계건설이 서울시 구로동 97번지 일대에 위치한 '로제리움'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전용면적 20㎡ 이하 소형으로 372실의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구성된다. '로제리움'이 위치한 구로동은 국내 대표 벤처기업의 약 25%가 집중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로·가산) 등 약 1만여 개의 기업과 14만여 명의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이다.

2·7호선 더블환승역 대림역 도보 5분 거리로 강남, 시청 등 서울 도심 및 인천, 수원 등 수도권으로 이동이 편하고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인근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구로구청, 고대구로병원 등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50% 무이자로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 시행사는 한국자산신탁, 분양 보증은 대한주택보증이 맡았다. 문의 02-857-1414 /서샛별기자

열단지보다 분양가 200만원 저렴

SK '신동탄 SK뷰파크'

SK건설은 20일 경기 화성시 반월동에 총 1967가구의 대단지 아파트 신동탄 SK뷰파크 분양에 나섰다.

지하 1층, 지상 15~25층의 25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59㎡(349가구), 84㎡(1214가구), 101㎡(306가구), 115㎡(98가구) 등 전체 1967가구로 구성됐다. 이중 SK건설은 전체물량의 80%에 달하는 1563가구를 실수요자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형으로 설계했다.

특히 SK건설은 3.3㎡당 분양가를 평균 898만원으로 책정해 고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인근 동탄1기 신도시의 매매가(3.3㎡당 평균 1050만~1200만원대)와 동탄2기 신도시 분양가(3.3㎡당 평균 1040만~1100만원대)보다 3.3㎡당 평균 150만원 이상 낮은 금액이다.

1214가구로 가장 많이 분양하는 전용 84㎡는 평면을 7개로 세분화했고, 주택형에 따라 최대 49㎡의 서비스면적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 공간은 공부방·가족실·드레스룸과 주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맘스 데스크 등 고객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서샛별기자

청단산

가양 '강서한강 자이타워'

서울시 가양동에 GS건설이 시공하는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강서한강 자이타워가 분양 중이다.

연면적 9만9647.41㎡(약 3만1000여평)에 지하 2층부터 지상 12~15층의 트윈타워 건물 규모로 모든 층이 탁 트인 개방감과 우수한 채광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일부 상층부는 한강까지 볼 수 있는 프리미엄을 만끽할 수 있고 11m에 달하는 높은 1층 로비라운지(A동 기준)는 외부 방문객은 물론 모든 입주자에게 품격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한다. 문의 02)3665-0500

은평뉴타운 '아이파크FG'

현대산업개발과 아이앤콘스는 서울 은평뉴타운 내 '아이파크 포레스트 게이트' 잔여분을 선착순 분양 중이다.

아이파크 포레스트 게이트는 지하 4층, 지상 27층, 전용면적 20~54㎡ 총 814실의 대단지다. 현재 남아 있는 물량은 5층 이하로, 기준층보다 저렴한 800만원대다.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단지 맞은편에는 은평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선다. 은평뉴타운 물푸레골 초입부의 종합의료 1만5000㎡ 부지에 800여 병상을 갖춘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문의 02)383-7600

강원랜드 앞 라마다호텔

초대형 워터파크 조성과 함께 종합 테마리조트로 탈바꿈하는 강원랜드 초입에 라마다 앙코르 강원이 들어선다.

사계절 안정적인 숙박 이용객과 세계적 호텔 라마다의 운영 대행 등 차원이 다른 투자 수익이 예상된다. 기존의 호텔 분양과는 차원이 다르게 대규모로 분양되는 라마다 앙코르 강원은 지하 4층~지상 15층 465실 규모로 객실 종류는 크기에 따라 7가지로 시공된다.

라마다의 고품격 호텔 이미지가 돋보이며 가구, 첨단 전자제품, 주방가구 등 모든 시설 및 제품이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다.

문의 02)567-8558

부자동네 달동네 '놀이터 평등하게'

낙후 놀이터 개선사업 등 대우건설 사회공헌 다양

아이들의 소중한 놀이공간을 개선하는 대우건설 사회공헌활동 사업 '푸른사랑 놀이터' 캠페인

"어린이가 뛰어노는 공간이니 더 안전해야죠!"

최근 아이들의 놀이터 2곳 중 1곳은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고, 모래에서는 5곳 중 2곳에서 기생충 알이 나오는 등 놀이터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표 건설사 중 하나인 대우건설이 사회공헌활동으로 어린이 놀이터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바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놀이터를 개선해주는 '푸른 사랑 놀이터' 캠페인이다.

푸른 사랑 놀이터 캠페인으로 어린이들이 안전사고를 입지 않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낙후지역이나 아동복지시설의 어린이 놀이터를 개선해주는 사업. 2007년 10월부터 시작된 캠페인은 현재까지 용인 선한사마리아원 등 14개 놀이터가 설치됐다. 올해는 5개를 추가로 설치해 19개까지 놀이터를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우건설은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활동 후원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뇌성마비복지회가 주최하는 오뚜기축제, 홀트장애인합창단 정기공연 등에 후원금을 지원하고 자원봉사를 통해 일손을 돕기도 한다. 올해부터는 매년 두 번씩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을 초청해 문화공연 관람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상기자

대출액 고작 이거? 신용등급 무관심 '큰코'

올크레딧 다음달 11일까지 '내 신용도 무료확인' 이벤트

금융기관서 평가하는 개인의 신용위험도 알려줘 영화예매권 등 선물 푸짐…시뮬레이터 이용기회도

모 IT기업의 A(33)대리는 조만간 둘째가 태어난 예정이라 전셋집을 늘릴 계획으로 은행을 찾아 대출상담을 하고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자신이 그간 짐작했던 것보다 신용등급이 낮아 원하는 대출액수가 간신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얼마전 카드 연체 한 번이 신용도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짐작을 했지만 자신이 평소 신용도에 무관심했음을 후회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평가하는 개인의 신용도는 대출, 카드 등 신용 거래가 빈번한 현대사회에서 거래 가능 여부와 거래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확실한 잣대다. 하지만 대출 등 미처히 필요할 때만 신용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가지다간 부동산 거래 등 자칫 생활 속에서 곤경에 처할 위험이 있다.

국내 대표 금융기관에서 자신의 신용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 싶다면 손쉽게 확인할 방법이 있다. 은행, 보험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국내의 주요 금융기관이 개인의 신용평가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개인신용관리 사이트 올크레딧(www.allcredit.co.kr)의 '내 신용도 무료 확인 이벤트'에 참여하면 금융기관에서 평가하고 있는 개인의 신용위험도를 알려준다.

이를 기초로 향후 자신의 신용거래 기준으로 삼아 활용할 수도 있으며 신용 관리 계획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올크레딧의 신용도 무료 확인 이벤트는 은행 등 국내 대표적인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신용위험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일반 신용평가와는 달리 개인의 우량한 신용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벤트는 다음 달 11일까지 올크레딧 사이트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신용도 결과를 확인한 모든 사람에게 영화예매권, 크리스피 커피·도넛세트을 비롯해 개인정보안심보험, 종합신용관리플러스5%할인권 등 4가지 선물 중 한 가지를 준다.

거기다 이벤트 기간 중 올크레딧의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면 장차 자신의 신용등급 변화를 예측해 현재와 비교해 얼마나 상승 또는 하락할지 미리 알려주는 신용등급 시뮬레이터까지 무료로 이용할 기회를 준다. /박성훈기자 sen@metroseoul.co.kr

돈 많이 빌려 집 샀다면…

닥터 크레딧의 꼼꼼한 신용관리

Q 내년에 오랜 전셋집에서 탈출해 드디어 아이 홈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라 대출 후에 제 신용도가 하락할지 염려가 됩니다. 제 명의로 대출이 늘어날 경우 신용등급에 변동이 생기는 지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A 국내에선 유일하게 개인 신용관리 사이트 올크레딧에서 '신용등급 시뮬레이터'라는 서비스를 통해 대출, 이자 및 원금상환, 카드 거래 증감 등 신용과 밀접한 요소들에 변수를 주어 과학적으로 개인의 신용등급 변동 여부와 변동폭을 변동확률로 미리 사전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이용하시면 신용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의 신용 관리에 유용할 것입니다.

부업으로 현대스위스 제휴 파트너십 어때요

치솟는 물가에 투잡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시간, 비용 등의 부담으로 마땅한 아이템을 찾기란 쉽지 않다.

시간은 절약하고, 별도의 비용 부담 없는 고수익 부업을 찾고 있다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제휴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자. 현대스위스 제휴 파트너십은 인터넷 홍보를 통한 수익 창출 프로그램으로 블로그·온라인 게시판 등을 활용하면 건당 최고 18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자격 제한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파트너 등록이 가능하며, 홍보를 위한 다양한 제작물을 지원하고 있어 비용 부담 없이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하다. 문의 www.alpsloan.com/partner

서민에 맞춤 재무설계 해드려요

금융감독원 서비스 돌입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해결책의 하나로 형산층과 서민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서비스를 내놓는다. '온라인 개인금융진단서비스'와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서비스'의 도입에 골자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숭실대에서 열린 '젊은이와 함께하는 금융현안 대토론회'에서 "스스로 가계 금융상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온라인 개인금융진단서비스는 개인이 온라인으로 본인의 금융상황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는 금융기관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소외계층에 금융 전문가가 전화를 걸거나 직접 만나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편 권 원장은 현 단계에서 정부가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투입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진단했다. 금융권 건전성, 채무구성,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금융회사 차원의 자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형산, 서민층이 재산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가계의 저축률을 높이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저신용층과 하우스푸어, 자영업자의 부채가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을 활성화하고 원리금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산기자

SC저축은행 '씽씽론' 인기 '고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SC저축은행)이 새롭게 출시한 '씽씽론'이 하루 100건이 넘는 대출가능 조회건수를 기록하며 직장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 SC저축은행 '씽씽론' 대출을 받은 직장인 전모(34)씨는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해 급전이 필요했는데 스탠다드차타드그룹 소속의 SC저축은행이라 믿을 수 있었다. 주변 사람에게 아쉬운 부탁을 하지 않고도 낮은 금리로 빠르고 넉넉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편올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좋은 직장인에게 딱 맞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씽씽론은 제도권 금융기관 중에서도 짧은 시간에 간편하고 안전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대출접수 완료 후부터 송금까지 고객과 약속한 시간내에 완료되는 직장인 대상의 인터넷 전용 신용대출상품이다. /박성훈기자

신한카드-컴투스 제휴 금융과 엔터 융합 나서

신한카드는 모바일게임 기업 컴투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금융과 엔터테인먼트 융합에 나섰다. 21일 서울 충무로의 신한카드 본사에서 두 회사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회사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상호간 사업 가능한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제휴모델을 다각도로 개발할 예정이다.

실례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이나 아이템 구매자 대상 신한카드의 혜택을 제공하거나, 게임을 실행함으로써 신한카드의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다. 또 고객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양사 고객들의 만족도를 보다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지산기자

영어는 기본, 국제적 시각을 갖춘 인재로

미국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경희사이버대학교 미국학과는 세계 초강대국으로 우뚝 선 미국에 대해 가르치며 국제 경쟁력과 세계적 시야를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미국학과 학생들은 입학 초기부터 미국 관련 기초 지식을 쌓으며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안목을 단단하게 다진다. 영어 실력과 함께 국제 감각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미국학과 커리큘럼은 정평이 나 있다.

학과 관계자는 "미국 언어이자 세계 공용어로 통하는 영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우리 학과는 기초 영어회화부터 실용영어까지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학 강의도 원어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의 교육 과정은 정통 영어 교육과 미국 지역학에 대한 인문학·사회과학적 지식을 고루 관통한다.

이러한 학습 환경은 미국 지역학 전문가의 꿈을 안고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학문적 기초를 다지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의 업무 능력 향상에도 기여한다.

◆ 세계 각국 학생들이 공부하는 글로벌 학과

미국, 캐나다, 에티오피아 등 재학생 10명 가운데 1명은 해외에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는 글로벌 학과이기도 하다.

한국과 미국을 모두 공부하고 싶어서 입학한 한국 거주 일본인 학생도 있다.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김진희 학과장은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은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살아도 동일한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 과정에 대해 서로 토론하다 보면 생생한 배움의 공간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오프라인 대학이었다면 교수가 강의만 하고 끝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이버대라서 다양한 지역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미국에 대한 의견을 수업 후에도 활발히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GI' 미국의 언어는 물론 삶까지 가르치는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경희사이버대학교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013학년도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정보문화예술 ▲사회과학 ▲국제지역 ▲경영 ▲호텔관광외식 등 5개 학부 19개 학과에 지원 가능하며, 대학원은 현재 원서접수 중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학부(02)959-0000·홈페이지 www.khcu.ac.kr/ipsi) 대학원(02)3299-8808·홈페이지 grad.khcu.ac.kr)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제적 시각·넓은 배경지식 갖춘 미국 전문가 양성
맞춤형 특강·영어 인터뷰 등 취업 준비 위한 강의도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미국 대사관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밖에 대학원 진학에 도움이 되는 교과과정과 학생들의 스터디 활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 구글·페이스북 본사 방문 기회도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학생들은 방학에도 바쁘다.

학과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매년 떠나는 해외연수가 그중 하나다.

올 겨울방학부터 신설된 미국 샌프란시스코 어학연수의 경우 연수 비용 70% 이상을 학과에서 지원한다.

이번 연수에는 글로벌 회사 애플, 구글, 이베이, 페이스북 본사 방문 일정이 있어 학생들은 최첨단 IT의 현장도 경험한다.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며 살아있는 미국을 배우는 것은 물론, 다양한 문화 체험의 시간도 갖는다. 총 2주의 어학연수 기간 동안 영문 이력서 및 비즈니스 레터 작성, 취업 인터뷰 코스를 포함해 각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학기 중과 방학기간에도 수시로 진행되는 특강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여름 진행된 '죽은 영어 살리기' 수업은 '구글을 활용한 영작', '콩글리시 탈피', '정확한 영어 구사하기', '드라마와 함께 하는 회화' 등 실용적인 내용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죽은 영어 살리기2'가 진행될 예정이라 기존의 기계적인 학습법에서 탈피해 살아있는 영어를 배우길 원하는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는 온라인 수업과 함께 영어권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는 중이다.

/김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김진희 학과장 일문일답

"미국 지역학 강좌 우리가 최고 자부"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는 미국을 전문적으로 기르치는 학과가 드물다. 대부분 영어영문학과, 영어통번역학과 등으로 언어 위주의 학과들이 많은 현실이다.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김진희 학과장은 "미국 언어와 지역학을 고루 다루는 우리 학과는 이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

▶ 미국학이란 어떤 학문입니까

▶▶ 영어와 지역학의 조화를 꾀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들어 오려고 우리말을 배울 때, 우리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 잘 알수록 진입 장벽이 낮아지죠. 우리 학과의 '미국 이민과 지구화', '글로벌컬처 코드와 문화 지능 키우기' 등의 과목을 들으며 미국과 더불어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세계 흐름을 읽는 혜안을 기를 수 있습니다.

▶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만의 장점은

▶▶ 학생들의 특성과 [illegible] 커리큘럼을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또 매년 재학생들에게 어학연수를 통해 미국의 심장부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요. 1인당 어학연수 비용도 70% 이상 지원합니다.

▶ 영어 말하기 대회가 인상적입니다

▶▶ 4년째 열리는 학과 대표 행사로서 영어 실력 향상과 학습동기 부여의 장입니다. 올해 주제는 '미국 대통령 취임연설'이에요. 학생들이 가상의 대통령이 돼 미국의 비전과 정책, 문제점 등 미국 사회 전반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앞으로 학과 발전 방향은

▶▶ 현재 '지역학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역학 전문 대학원생을 해외 인턴으로 파견하는 등 지역학 전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수요에 비해 전문 교육이 이뤄지는 곳은 없는 것 같아 우리 학과가 앞서려 합니다. 지속적인 교수진 보강 및 커리큘럼 개편을 통해 미국 지역학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전교생 영어 말하기 대회

미 대통령 취임연설 주제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가 전교생 대상 제4회 영어 말하기 대회를 연다.

올해 주제는 미국 대선을 기념해 '내가 2013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어떤 취임 연설을 할까'다.

준비한 영어 원고를 암기한 후 연설 모습을 300초 이내 동영상으로 제작하면 된다.

참가하려면 신청서를 홈페이지(www.khcu.ac.kr/english/)에서 다운받아 동영상 파일 및 영문 원고와 함께 e-메일(english@khcu.ac.kr)로 보내면 된다.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총 1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입상자 명단은 내년 1월에 발표된다. 문의 02) 3299-8666

경희사이버대학교 개설학과 및 대학원 개설전공

학부	학과
정보문화예술학부	미디어문예창작학과 미디어콘텐츠디자인학과 (구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디지털미디어공학과 (구 정보통신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사회과학부	NGO학과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공공서비스리더십학과 (구 행정학과)
국제지역학부	일본학과, 중국학과 미국학과, 한국어문화학과
경영학부	e-비즈니스학과 자산관리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호텔관광외식학부	호텔경영학과 관광레저경영학과 외식농산업경영학과 (구 외식농수산경영학과)
대학원	**전공**
호텔관광대학원	호텔외식MBA 전공 관광레저항공경영 전공
문화창조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 전공 글로벌한국학 전공

섹시한 연말 파티룩 이렇게!

게스 코디 아이템 제안

셀럽 파티에 각종 송년 모임까지. 1년 중 행사가 많은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게스가 섹시한 이미지에 스타일리시함을 더한 파티 아이템을 제안했다.

누구보다 돋보이는 스타일링을 완성하고 싶을 때는 레오파드 패턴의 퍼 코트만한 게 없다. 조금은 과감해져야 할 홀리데이 시즌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아이템이다. 심플한 블랙 미니 원피스에 아찔한 스틸레토 힐을 매치해 럭셔리한 파티 룩을 연출하거나 타이트한 스키니 진에 굽이 있는 스니커즈를 매치해 캐주얼하면서 섹시한 데이웨어 룩을 연출할 수 있다.

와일드하고 스타일리시한 매력을 풍기고 싶은 남성들에게는 세계적인 DJ 티에스토와의 콜라보레이션 아이템이 제격이다.

일렉트로닉 뮤직계의 신으로 불리는 인물인 티에스토와의 캡슐 컬렉션은 일렉트로닉 뮤직과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돼 특히 이목을 끌고 있다. 롤 부분의 퀼팅 디테일이 돋보이는 빌러 레더 재킷의 경우 어두운 색상의 데님 바지에 매치해 섹시한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포멀한 바지에 스니커즈와 함께 꾸며 감도 높은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다.

이밖에 게스에서는 언디고 컬러의 지퍼 디테일 스키니 진, 티에스토의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연상시키는 그래픽 티셔츠 등 연말 시즌 톡톡 튀는 아이템들을 준비했다. 문의: www.guesskorea.com 02)516-5611

/박지원기자

유럽의 전원주택을 닮은 '더 가브리엘'의 외관(왼쪽)과 셰프 추천 메뉴인 '흑미 리조또'

눈도 입도 유럽여행 온듯 '힐링'

홍대앞 데이트명소 '더 가브리엘' — '흑미 리조또' 등 메뉴마다 풍미 가득

최근 이가를 즐기는 방법은 '힐링(몸이나 마음의 치유)'을 키워드로 한 트렌드가 대세다. 데이트 코스도 이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파로 북적이고, 시끄러운 공간에서 이야기 나눌 겨를도 없이 쫓기듯 허기를 채우는 장소를 기피하고 있어서다.

인기 데이트 코스이지만 인파로 넘쳐나는 홍대에도 힐링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 마치 유럽의 한 전원주택을 그대로 갖다놓은 것처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더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은 기와를 얹은 아늑한 지붕에 노란색 건물 외벽, 장미를 비롯해 화사한 꽃들로 장식된 이국적인 정원을 가지고 있는 2층 구조의 레스토랑이다.

커다란 나무문을 열고 들어오면 정판 가득 적힌 푸짐하면서도 맛있는 음식들이 음료들과 함께 소개돼 있다.

1, 2층에서, 또는 야외 테이블과 아담한 지하 개별 공간에서 편안하게 식사와 담소를 즐길 수 있는 이곳에는 신선한 감각으로 만들어낸 세디트 메뉴가 준비돼 있다.

탱글탱글하고 고소한 소시지 구이와 베이컨, 스크램블 에그와 숯불에 구운 등심, 치아바타 빵 등이 나오는 브런치 메뉴와 독특한 케이스트리 도우 피자, 헤드를 통째로 넣은 풍부한 크림 소스 파스타, 토마토 칠리 파스타, 누룽지 파스타 등이 새로움이 했다. 특히 여러 디저트 메뉴와 알뜰한 가격은 담백한 데이트를 꿈꿀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근사한 공간이기도 하다.

최고의 데이트 코스인 가브리엘에서는 연말 시즌 특별한 메뉴로 '흑미 리조또' 등을 추천했다. 문의: 02)322-7167

/신희은기자

강강술래 홍대점 "유학생에 와인 무료"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 홍대점에서 최근 우리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한식세계화 홍보 캠페인'에 참가한 연세대학교 외국인 학생들이 식습관을 듣고 건배하고 있다. 홍대점은 모든 갈비 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로 제공하고, 외국인 2명 이상 동반 시 와인 1잔씩을 무료로 주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티켓몬스터 전품목 무료배송

23일까지 '몬스터위드'

티켓몬스터가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티몬이 23일까지 전 품목을 무료 배송 하는 이벤트인 '몬스터위드'를 실시한다.

이 기간 횟수에 관계 없이 5000원 이상 구매 시 상품을 공짜로 배송해준다.

티켓몬스터 관계자는 "크리스마스와 새해 선물 등으로 지출이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의: www.tmon.co.kr

한솔도시락, 커피도 판다

도시락카페 '찬차마요' 열고 유기농 원두사업 진출 선언

최근 지하철 2호선 강남역 4번 출구 앞에 낯선 매장 하나가 문을 열었다. '찬차마요(chanchamayo)'란 간판을 단 이곳은 커피와 도시락을 함께 파는 도시락 카페. 도시락 업체 한솔은 이 매장을 시작으로 페루의 유기농 커피 '찬차마요 커피'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찬차마요 커피는 페루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찬차마요시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커피로 한솔은 찬차마요시가 인증한 최상등급(AA90+) 생두를 직거래로 수입, 국내 로스팅을 거쳐 선보일 계획이다. 국내에는 거의 소개된 바 없는 찬차마요 커피는 부드럽고 섬세한 신맛과 과일향을 담은 신맛이 어우러진 남미 최고의 커피로 통한다.

한솔의 이영덕 대표는 "기존 커피전문점들이 커피보다 장소를 파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찬차마요 커피는 일본의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처럼 진짜 맛있는 커피를 파는 커피숍다운 커피숍의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솔은 우선 기존 한솔도시락 가맹점에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을 설치해 찬차마요 커피를 함께 판매하고, 이르면 연말까지 커피만 파는 전문점도 낼 예정이다. 특히 원두 직거래를 통해 찬차마요시의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국내 소비자에겐 커피 가격의 거품을 확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찬차마요 커피에서 파는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은 3000원, 카페 라테와 카푸치노는 3500원으로 타 브랜드보다 저렴한 편이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처음처럼' 섹시트로이카랑 마셔요

현아·구하라·효린 3인 이효리 이어 모델 발탁

섹시 콘셉트를 내세워 온 걸그룹 멤버들이 '포스트 이효리' 의 자리를 차지했다.

롯데주류는 21일 걸그룹 포미닛의 현아, 카라의 구하라, 씨스타의 효린과 소주 '처음처럼' 모델 계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이들을 활용한 새로운 캠페인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처음처럼' 모델로 활동한 이효리가 화려하고 대중적인 이미지를 앞세웠다면 새로운 '섹시 트로이카'는 풋풋함과 발랄함이 가미된 섹시미를 선보일 것"이라며 "세 사람 모두 절

(왼쪽부터)효린, 구하라, 현아

지만 톡톡 튀는 매력으로 '처음처럼'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처럼'의 새 모델인 현아, 구하라, 효린이 최근 촬영한 광고는 다음 달 1일부터 포털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전효순기자

찌개 끓일땐 '백설 다담' CJ제일제당은 21일 서울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앞에 대형 뚝배기를 설치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찌개양념 '백설 다담' 제품 1천 개를 증정하고 된장찌개 시식 봉사를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내년 일까지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백설 다담' 총 5만 개를 나눠주는 게릴라 샘플링 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설 다담'은 요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갖은 양념을 넣어 만든 프리미엄 찌개양념 브랜드다.

광동, 여성맞춤 헛개차 출시

2년 전 '광동힘찬하루헛개차'를 내놔 남성 헛개음료 시장을 연 광동제약이 이번에는 여성 취향의 맛과 성분을 담은 신제품 '광동여인지심 헛개차'를 출시했다.

광동여인지심헛개차는 숙취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헛개나무 열매추출농축액 외에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히알루론산-KD와 엘라스틴펩타이드 성분을 보강했다. 340㎖ 가격은 소매점 기준 1000원.

Star bag

울랄라 세션 '슈스케' 결승 초대

그룹 울랄라 세션이 엠넷 '슈퍼스타K4' 결승전에 초대가수로 선다.

리더 임윤택도 함께하는 이날 공연은 지난 시즌 결승전을 위해 아껴두었던 야심작으로 완성됐다. 울랄라 세션은 "1년 전 우승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다. 네 번째 슈퍼스타가 탄생하는 자리에 함께해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결승전은 23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무서운 신인' 이하이 신곡 공개

이하이가 박진영의 발라드로 다음달 초 활동 재개에 나선다.

22일 정오에 공개될 이하이의 신곡은 박진영이 작사·작곡한 발라드로 양현석 대표가 이 작업을 비밀리에 진행했으며, 뮤직비디오는 따로 제작하지 않는다. 앞서 이하이는 지난달 2일 발표한 데뷔곡 '1 2 3 4'로 23일간 주요 음원차트 1위를 기록했다.

차수연 판타지오 대표와 결혼

배우 차수연이 하정우·윤승아 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판타지오의 나병준 대표와 21일 결혼했다.

소박하게 식을 올리고 싶다는 신랑·신부의 뜻에 따라 가족들만 모인 비공개 결혼식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배우와 매니저로 만나 2007년부터 정식으로 교제해왔다. 현재 SBS 주말극 '내 사랑 나비부인'을 촬영 중인 차수연을 배려해 신혼여행은 내년으로 미뤘다.

이승기 '개콘'서 신보라 남친

이승기가 KBS2 '개그콘서트'에 신보라의 새 남자친구로 출연했다.

그는 21일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진행된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 '생활의 발견'에 출연해 특유의 '허당' 면모를 선보였다. 이날 녹화분은 25일 방송된다. 한편 다음달 1~2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이승기 희망 콘서트'를 연다.

연하남과 키스신 계속~ 하하

여신 미모 뽐낸 김희선과 솔직토크

가까이에서 본 김희선(35)은 역시 '원조 여신' 다웠다.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가 됐지만 미모는 세월도 비껴간 듯했고, 특유의 발랄한 매력도 여전했다. 결혼 후 내조와 육아에 집중하다 6년 만의 드라마 복귀작인 SBS '신의'에서 물오른 연기력까지 보여준 그를 종영 20여일 만인 21일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김희선은 "꾸며서 이야기하는 법은 모르겠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나"면서 그간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 '신의'가 방송되기까지 몇 년이나 기다렸다고 들었다. 오랜만에 복귀한 소감은?

촬영이 너무 힘들어서 종영 후 한동안 강아지처럼 자고 먹고 했어요. 촬영 환경이 예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이 아쉬워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후배들이 많아졌다는 점이에요. 전에는 막내였는데 지금은 중간 위치가 됐죠.

– 드라마를 끝내면서 '스타의 허물을 벗고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한 소감이 인상 깊었다.

20대 때는 매니저가 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입혀준 색으로 연기했다면, 이제는 나이도 경험도 생겨 누구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내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 드라마의 경우에도 내가 연기한 은수를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직접 이야기하고 회의하는 등 역할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좋아요.

– 열 살이나 어린 이민호와의 애틋한 연기가 화제였는데.

처음엔 열 살 연하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리다고 해서 자꾸 이모·조카 사이로 보면 연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려 했고, 작품을 하는 동안에는 아이와 신랑 이야기는 가급적 피하려고 했어요.

– 남편이 질투는 안 했는지. (웃음)

이번 작품은 남편 허락을 받지 않고 했어요. 질투가 워낙 많아서 촬영장에 달려올 것 같았거든요. 특히 연하남과 포옹하고 키스신을 찍으니까 더 긴장하더라고요. 요새 운동도 시작했어요. (김희선은 이 대목에서 남편이 운동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했다.) 처음엔 드라마 팬이었는데 키스신 나온 후로는 모니터도 안 해주더라고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해는 가요. 저라도 그랬을 걸요. 하하하

– 행복해 보여 보기 좋다.

부부가 좋기만 하면 가식이죠. 남편이 집에선 말도 잘 안 들어요. 내 칫솔 그냥 쓰고 양말도 아무 데나 두고요. 그래도 지난달 19일에 결혼기념일이었는데 가로수길 카페를 빌려서 이벤트를 해줬어요. 젊은 (이)민호와 (이)필립하고 연기하다 훨씬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촬영하는 동안엔 아이를 챙겨주지 못해 안쓰러웠답니다. 엄마가 필요한 나이잖아요.

– 변함 없는 미모의 비결은 뭔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 되게 단순하거든요. 누군가 내게 상처를 줘도 밤 12시를 안 넘겨요. 또 조심하고 예뻐보이기 위해 먹지 않고 해하고 일찍 잔다고 하면 부담감에 얼굴이 더 붓거나요. 그리고 전 늦둥이 외동딸이라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 이젠 연기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나?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다.

만약 다음 작품을 또 6년 만에 한다면 미혼돈이에요. 그러니 그 전에 자주 작품을 해야죠. 사실 이번 작품도 아기가 돌 지나자마자 하기로 했는데 제작이 늦어지면서 이제야 선보여진 거랍니다. 그동안 기저귀 등보다 보니 시간이 흘렀어요. 일단 당장은 아닌 만에 가족들과 미국에 갈 계획이에요. 다음달에는 쇼핑한 것을 선보일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박지원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서보형(라운드테이블) 디자인/석지은

촬영 힘들어 한동안 [illegible]
남편 허락도 안받고 [illegible]
동안 [illegible] 스트레스 [illegible]

08
DECEMBER
2012
ULTRA WORLDWIDE
로드 투 울트라
MUSIC MAKES THE WORLD GO 'ROUND
SEOUL KOREA
JAMSIL INDOOR STADIUM
ROAD TO
ULTRA
KOREA
ULTRA IS BACK!!!
THIS WINTER'S BIGGEST INDOOR PARTY
디플로, 하드웰, 메이저 레이저, 리햅, 딜런 프란시스 등
추운 겨울을 핫하게 녹여줄 전세계 최정상 라인업!
로드 투 울트라 코리아
2012. 12. 08 SAT 잠실 실내 체육관
Advance Ticket 절찬 판매중!!
UMFKOREA.COM
/UMFKOREA | /UMFKOREA | /ULTRAFANPAGE | /ULTRAMUSIC | /UMFTV
주최 | 주관 | 제작지원 | 티켓 | INTERPARK AUCTION YES24.COM

'26년' 출연 후 악플 악몽

한혜진 "외압 겪은 적 없어"

배우 한혜진이 영화 '26년'에 출연한 후부터 악플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20일 열린 영화 개봉 기념 미디어데이에서 만난 그는 "출연을 결정한 후부터 성적인 내용의 뜬금없는 악플들이 많이 달리기 시작했다. 왜 그런지는 지금도 모르겠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민감한 정치적 소재를 다룬 이 영화는 외압설이 나돌며 투자가 철회되는 등 제작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여러 스타들도 출연 제의를 거절하거나 하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외압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배우로서 직접 겪은 적은 없었다. SBS '힐링캠프' 진행이나 광고나 여전히 잘 하고 있다"면서 "영화가 관심을 받으면서 요즘 시나리오도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다 이내 "출연을 거절한 배우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용기 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는 5.18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고 꼭 해야겠다는 책임의식이 들었다. 유족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데, 이렇게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9일 개봉할 이 영화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무고하게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들이 26년 후 비극의 주범인 '그 사람'을 단죄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한혜진은 부모를 잃고 불운하게 살아가는 국가대표 사격선수 심미진을 맡았다.

/서하나기자 luk0427@

미녀배우 가요계 '외도'중

신세경 달콤한 사랑 담은 캐럴송···한효주는 싱글앨범 발표

미녀배우들이 잇따라 가요계 외도에 나섰다.

신세경은 인디밴드 에피톤 프로젝트와 13일 녹음을 마치고 29일 남녀의 달콤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캐럴송을 발표한다.

소속사 나무액터스는 "신세경이 평소 에피톤 프로젝트의 팬으로서 음악 스타일을 잘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 '푸른소금'의 OST 등 음악 작업에 참여한 경험도 있어 당초 예정한 녹음 시간을 반이나 단축할 수 있었다"고 귀띔했다.

신세경은 연기자 데뷔 전 아이돌 가수를 준비하는 등 수준급의 노래 실력을 자랑한다. 앞서 6월에도 디지털 싱글곡 '넌 달콤했어'를 발표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자타공인 인디음악 마니아 한효주는 21일 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프로젝트 싱글 앨범 '숨바꼭질'을 발표했다.

그는 앞서 2010년 야외음악 축제인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의 페스티벌 레이디로 선발돼 밴드 노리플라이와 돈트 유 노 등 불러 사랑을 받았다. 최근에는 모델로 활동 중인 화장품 광고 CM송을 직접 작사 작곡하기도 했다.

모델 겸 가수인 장윤주도 19일 정규 2집 앨범 '아임 파인'을 발표했다. 10개의 자작곡이 수록된 이 앨범에는 브라운 아이드소울의 멤버 나얼이 보컬 디렉터로 참여했다.

미녀 배우들의 잇따른 음원 발표에 대해 한 가요계 관계자는 "남다른 감수성을 가진 배우들에게 노래는 자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다"면서 "연기 외 예술 활동을 통해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이미지 제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What's Hot

수제화 슈즈 브랜드 **바바라(BABARA)**가 겨울철 구두 관리법에 대해 조언한다. 겨울철 염화칼슘이 뿌려진 도로에 노출된 부츠는 곰비로 마른 수건으로 잘 닦아내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린다. 구두를 보관할 때는 종이 상자나 헝겊 커버에 넣어 보관하고 녹차 티백을 신발 안에 넣어두면 안 좋은 냄새를 없앨 수 있다.

코리아테크는 독일의 명품 축향이 미와(Mewa)를 롯데 신세계 백화점을 비롯한 국내 주요 백화점에서 판매한다. 미와는 모든 옷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특수 코팅이 돼있어 온도의 영향 없이 옷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주며 오랫동안 사용해도 색상이 옅어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오미스토어(momastore.co.kr)가 뉴욕현대미술관 모마의 다지인 상품을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몰 운영 방식을 리뉴얼했다. 오미스토어는 현대카드가 지난 2006년부터 뉴욕 현대미술관과 제휴를 맺고 국내 최초로 모마 상품들을 독점 소개하고 있는 온라인 스토어다.

신한금융투자는 21일까지 다양한 기초자산과 수익구조를 갖춘 DLS 2종과 ELS 13종을 판매한다. 이 상품들은 금융투자상품 분류에 따라 ELS 5850~5852호는 저위험(4등급), 그 외 상품은 고위험(2등급)으로 분류된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고 신한금융투자 지점 및 금융상품몰(shinhaninvest.com)에서 가입할 수 있다.

스프리스는 계선해거진 쉐버빌 등이 가미된 크리스마스 화보를 공개했다. 기인된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다양한 컬러의 다운 제킷을 입어 상의는 볼륨감 있게, 반대로 하의는 좋게 변를 해 뮤금 비율 롱미를 한껏 부각시켰다.

'국민슈즈' 금강제화 윈터세일 돌입

내달 2일까지 20~30%
균일가 크루즈 이벤트도

금강제화는 다음 달 2일까지 전 브랜드 20~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2012년 윈터 세일'을 실시한다.

윈터 세일은 지난 봄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 행사로 남녀 정장구두는 물론 캐주얼화, 등산화, 골프화 등 제화 및 핸드백, 의류 전반에 걸쳐 인기 제품들을 넉넉하게 구입할 수 있는 쇼핑 기회다.

전국 400여 개 금강제화 랜드로바, 브루노말리, 들리한센 매장에서 실시하며 특별 코너로 신사 숙녀화를 9만9000원, 여자 부츠를 15만원에 균일 판매하는 특별 코너를 매장별로 제공을 달리해 운영한다.

한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유럽과 싱가폴, 후쿠오카로 크루즈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경품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전국 매장에서 응모권을 받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다음 달 금강제화 홈페이지(kumkang.com)에서 발표한다.

아침밥 홍보 '주먹밥 나눔' 행사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농림수산식품부의 후원으로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진행하는 아침밥 먹기 실천을 제고를 위한 전국 캠페인 의 서울지역 행사가 20일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는 오전 8시부터 1500여 명의 직장인과 학생 시민들에게 현미로 만든 주먹밥을 나눠주고 아침밥의 효능과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함께 배포했다.

아침밥 먹기 캠페인은 이른 아침 출근 준비로 아침을 거르기 쉬운 직장인들에게 아침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올바른 녹색 식생활의 실천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전국 14개 광역시도 지역에서 26일까지 전개된다.

'홈스타일 까페모리' 맛보세요

쟈뎅 28일까지 이마트서
10% 할인 시음행사 진행

커피 전문기업 쟈뎅은 28일까지 이마트 고객들을 대상으로 '홈스타일 까페모리 리뉴얼 이벤트'를 실시한다.

전국 20여 개 이마트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23~25일에는 주요 시음행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홈스타일 까페모리'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고급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커피믹스로 고용량 인스턴트 커피를 사용하고 각 커피별 특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기존에 20개입이었던 것을 10개입으로 줄여 고객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했다. 패키지 또한 소비자들의 시선과 입맛을 끌기 위해 각 커피의 특징을 강조한 이미지를 넣고 컬러감을 한층 부각시키는 등 새롭게 리뉴얼했다.

방송대 '구미 학습관' 신축 개관

22억 투입 989㎡ 규모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21일 경북 구미시 남통동에 소개한 '구미시 학습관'의 신축 개관식을 했다.

구미시 학습관은 지상 2층, 연면적 989㎡(약 299평)로 행정 도서실, 전산실습실, 학생회실, 강의실 등을 갖췄다. 32대의 차량이 주차 가능하며 총 2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조남철 총장은 "구미시 학습관 신축은 구미, 김천 등 인근 지역 소속 학생들에게 계획하고 참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구미지역 국회의원, 구미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외빈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보직교수, 교직원과 구미시 학습관 추진간담위원장 등 동문, 학생 및 인근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글로벌 블루 '쇼핑지수' 방콕, 아·태지역서 7위

방콕이 해외여행 쇼핑 전문기업이자 무료 여행 쇼핑가이드 발행처인 글로벌 블루의 '2012년 쇼핑지수'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7위를 차지했다.

이 설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5개 도시에 대한 종합적 쇼핑 측면을 기준으로 상품 가격의 적절성, 편리성, 호텔 및 교통, 문화와 날씨 등의 카테고리로 나눠 평가가 이뤄지어 방콕은 모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2~4성급 호텔의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적절성에서 100점 만점에 만점을 독점하여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했고 도심의 버스와 택시의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교통 부문에서도 9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씨앤엠 VOD결제방법 '쿠폰서비스' 새로 도입

씨앤엠은 새로운 VOD 결제방법인 '쿠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로써 씨앤엠 디지털케이블TV 고객은 일반 결제와 TV 포인트 결제에 이어 쿠폰 결제 방식까지 추가돼 더욱 편리하게 유료 VOD를 이용할 수 있다.

씨앤엠 VOD 쿠폰서비스는 3만원, 2만원, 1만원 등 총 3가지 쿠폰으로 구성돼 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추가 보너스 제공으로 3만원 쿠폰을 구입하면 충전액의 최대 20%인 6000원을 무료로 지급해주는 것이다. 2만원 쿠폰은 15% 추가 적립된 2만3000원, 1만원 쿠폰은 10% 추가 적립된 1만1000원을 이용할 수 있다.

구매 방법은 리모컨 메뉴 버튼을 누른 후 마이TV ▶ 쿠폰샵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금액의 쿠폰을 선택하면 된다.

What's Cool

예스24는 도서, 음반, DVD, 기프트 상품을 4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2013 예스24 약속을 달력'을 30만개를 무료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예스24는 달력에 전자책, 공연, 영화 등 문화상품을 3만5000원 이상 할인받을 수 있는 16종 할인 쿠폰책을 담아 실용성을 더했다.

회원제 온라인 쇼핑몰 **제로라운지**(zeroloung e.co.kr)에서 이탈리아의 멋 이야기를 들려주는 가게에 소개한다. 다음레터의 브라운 레딩리온 윙팁 더비 슈즈는 투그린 모양이 팁으로 기 이탈리아 특유의 날렵함을 주는 라운드 토 스타일로 클래식함이 돋보인다. 또한 프리미엄 슈즈에서만 볼 수 있는 히든 실 채널을 안쪽에 덧대 실밥 자국이 보이지 않는다.

충북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에서 펴낸 '희망을 꿈꾸는 한국어 교육 이야기'가 15일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됐다.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지도 체험 수기 공모전의 2011년도 당선작을 엮은 이번 수기집에는 전 세계 한국어 교사들의 교육 노하우와 생생한 한국어 교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천재교육은 아이들이 놀이하듯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힐 수 있는 생활 그림 영어 동화책인 '토키북(Talk ebook)'을 출시했다. 토키북은 3~5세 아이를 대상으로 혼자 먹기, 옷 입기, 배변 훈련 등 7가지 생활 주제를 담아 책 속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며 올바른 생활습관을 익히고 영어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솔가족주도는 저염도 천연소금 '솔기 숨쉬는 갯벌 신안 천일염'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전남 신안 신의도의 갯벌에서 채염한 자연소금이다.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활성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마그네슘, 칼슘, 칼륨, 망간, 아연, 철 등 90여 가지의 천연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LG 드럼세탁기(모델명 F14A8QDS)가 스위스 정부 산하 친환경 전문 인증기관인 클리마톱으로부터 저탄소 인증 '클리마톱 라벨'을 획득했다. LG 드럼세탁기는 고효율 저진동 'DD모터'와 균형한 손빨래 효과를 구현하는 '6모션' 기능으로 기존 제품 대비 탄소 배출량을 17%가량 절감시켰다.

온라인투어가 CJ오쇼핑에서 23일 오전 12시50분 중국 노블리스 여행 시즌 3탄 '상해/항주/주장고진+송성가무쇼 4일'을 선보인다. 관광지 간 이동시간을 최소화하고 세계적인 호텔 체인 쉐라톤 호텔 전 일정 숙박, 국적기 대한항공 이용으로 편안함까지 보장된 3박 4일 품격의 패키지 상품이다. 행사 출에 예약자에 한해 중국 단체 비자를 무료로 발급해준다.

딸 위한 엄마의 복수극…연기·절제 빛났다

Film Review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돈 크라이 마미

미성년 성폭행 소재…결말부 맥빠져

시적 복수를 다룬 국내 영화에서 주인공이 대부분 여성 가장이란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1985년과 2005년에 각각 개봉됐던 윤여정 주연의 '에미'와 이영애 주연의 '친절한 금자씨'가 그랬고, 22일 공개될 '돈 크라이 마미'와 내년 초 개봉될 예정인 '공정사회' 역시 연약한 몸으로 직접 응징에 나서는 모성을 앞세운다. 1970년대 후반 찰스 브론슨 주연의 '데스 위시'를 시작으로 최근의 '테이큰'과 '모범시민' 등 오랫동안 여러 할리우드 영화들이 싸움 잘하는 아버지를 내세웠던 것과 비교된다.

한국 엄마들이 스크린에서 유독 강해지는

이유는 뭘까? 아 같은 묘사는 갈수록 무기력해지고 있는 남성 가장들과 공권력을 향한 비판으로 풀이되는데, 어쨌든 국내 영화에서 사적 복수의 주체가 엄마로 자주 그려지는 대목은 의미심장하며 씁쓸하기까지 하다.

남편과 이혼한 유림(유선)은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외동딸 은아(남보라)가 남학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다. 범인들이 미성년자들이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을 보고 더욱 분노한다. 성폭행 충격에 시달리던 은아는 결국 자살하고, 유림은 복수를 결심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해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정공법으로 풀어가는 연출자의 솜씨는 이 영화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성폭행이나 응징 장면의 표현 수위에 있어 선정적이고 독하게 접근할 법했지만,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절제가 돋보인다.

반면 그러다 보니 결말부로 갈수록 다소 맥이 빠지는 허점도 드러난다. 또 실화가 바탕이라고 강조하는 상영 전후의 자막은 작품의 주제와 의도를 너무 선명하게 부각시켜 계몽적인 기능에만 머물도록 유도한다.

사연 많은(?) 여자 캐릭터 전문인 유선의 열연은 단연 박수받을 만하다. 상처받은 모성애를 온몸으로 토해냈다. 엄권택 감독의 아들 권현상도 실제로 만나면 정말 때려주고 싶을 만큼 불량 학생을 제대로 연기했다.

만듦새의 몇몇 단점에도 배우들의 호연이 주제를 가리지 않아 다행스럽게 느껴지는 노력이다. 15세 이상 관람가.

박찬욱·봉준호·김지운 시네마테크 총출동

박찬욱·봉준호·김지운 등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명감독 8명이 28일 구찌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리는 시네마테크 개관 10주년 기념 '2012 시네마테크 어워즈 및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한다고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가 21일 밝혔다.

이들 감독과 영화배우 안성기·유지태는 시네마테크 홍보 및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베스트 프렌즈상'을 받는다.

wind8686@naver.com

지금 Daum 소셜웹에서는 **와글와글**

김진표 360도 車 롤코 성공 "멋지군"

자동차 버라이어티 쇼인 '탑기어코리아' 시즌3에서 MC 김진표가 360도 자동차 롤러코스터 도전에 성공했다고 한다.

이번 자동차 롤러코스터 도전은 전용 트랙 크기만 폭 70m 상이, 10m 높이로 대규모다. 제작 비용은 3억원이나 든 초대형 미션이었다. 특히 MC 김진표가 직접 도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행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360도 자동차 롤러코스터 도전은 주행 시 6G의 중력이 발생해서 자동차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단 한 번만에 성공해야 하는 일생일대의 미션인 것이다.

김진표는 어려운 상황에서 회전 주행 중에 자동차 범퍼가 손상되고 번호판과 사이드미러가 떨어져나가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완주했다.

도전은 지난 18일에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김진표는 제작진과 전문가의 조언 속에서 스피드 테스트 등 리허설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윤정말

nim
관전 스릴 짱이었다!

sunnyauto
김진표가 360도 회전코스 주행에 도전하는 현장에 있었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지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 긴장됐다.

gon no
김진표는 탑기어 진행하고 무척이나 행복할 듯하다. 나중에 혹시라도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학창시절에 김진표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 참 좋아했었다고 말해줘야지.

ramnen
너무 멋있다. 요즘 '탑기어'에 흠뻑 빠져있는 우리 신랑에게 알려줘야겠다.

푸푸
'탑기어코리아'는 자동차를 갖고 참신한 시도를 많이 하는 듯

/정리=김현정기자 hjkim@

살이 포동포동한 포항 과메기

유덕노의 푸드스토리

생미역을 껍들여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과메기는 겨울철의 별미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살이 잡혔던 청어를 바닷바람에 말려 만들었기 때문인데 청어가 잡히지 않으면서 요즘은 주로 꽁치로 만든다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청어가 많이 잡혀 오리지널 청어 과메기를 맛볼 수 있을 것 같다.

알다시피 과메기는 포항의 특산물이다. 그런데 청어는 포항은 물론이고 서해와 남해에서도 두루 잡혔던 생선인데 왜 유독 포항 과메기만 유명해진 것일까?

조선 중종 때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지금의 포항을 설명하는 영일현 항목에 매년 겨울이면 영일만에서 청어가 가장 먼저 잡힌다고 했다. 이곳에서 잡힌 청어는 제일 먼저 나라에 바쳤고 그 다음에야 각 마을에서 잡기 시작했다. 청어가 잡히는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해의 풍년을 점쳤다고 한다.

청어가 가장 먼저 잡혔다고 과메기가 포항 특산물이 될 수 있을까? 이유는 포항에서 잡힌 청어기 맛이 으뜸이었기 때문이다.

겨울 영일만으로 몰려오는 청어는 산란기를 앞두고 살이 포동포동 오르는데 이후 남하하면서 점점 살이 빠진다. 때문에 포항 청어를 최고로 여기면서 임금님에게까지 진상했던 것이다.

과메기는 청어에 소금 간도 하지 않고 바람에 말려 만든다. 다른 지방과 달리 포항에서는 왜 소금조차도 뿌리지 않았던 것일까? 청어에 뿌리는 소금마저 아까웠기 때문이다.

지금은 청어가 사라졌지만 예전 청어가 몰려올 때면 배가 다니기 불편할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한다. 문자 그대로 '물 반 고기 반'이었으니 소금 값마저 아까울 정도였기에 그저 밖에다 널어 바람에 말렸던 것이다. 포항에서 과메기라는 독특한 음식이 발달한 배경이다. /음식문화평론가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 8877
www.saju4000.com

회사 사정 안좋아 퇴직 불안해 창업 성공 어려우니 저축 올인

체어트리체 여자 74년 1월 10일 양력

Q 아직 미혼으로 모아놓은 돈도 넉넉지 않은데 회사 사정도 한 동이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창업을 해도 좋을까요? 그동안 소심한 성격 때문에 하고 싶은 일에 도전도 못하고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부모님도 없다고 했는데 결혼운과 연애운도 없는 사주인가요?

A 숙명론과 운명론에 대해 숙명은 정해진 것으로 본인의 힘으로 어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자로 태어나고 현재의 부모 형제를 만나서 살게 되는 것과 왜 이날 이 시각에 태어났는가와 같이 이미 결정돼 있는 것으로 전생이나 조상의 기운으로 미뤄지는 것입니다. 운명론은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본인의 노력과 뜻으로 바꿀 수가 있어 앞날을 개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주풀자를 논하다 보면 이 두 가지가 교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해서 도움될 일이 없으니 꾸준히 저축하십시오. 부자는 안 되지만 빚지는 일은 없게 되어 현재운이 좋다면 독신으로 지내겠지만 남자같은 성격이니 혼 줄을 잘도 쉽게 되니 다소 안심됩니다.

졸업 1년 넘었는데도 백수신세 중소기업 흔대말고 일단 입사

akuali 남자 87년 7월 1일 양력

Q 졸업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는 취업준비생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에게 맞는 직업을 찾지 못하고 헤매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야 할지 고민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딱 막막합니다. 제가 행복해할 수 있는 직업은 없을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심정 헤아리니 답답하겠습니다. 귀하는 사리분별이 정확하고 매사 적응력이 빠르지만 이론적으로 따지다가 지모지책(合膽合敎)하므로 자신의 단점을 체크해 보십시오. 2014년까지는 중소기업 쪽으로 직장이 생깁니다. 탐탁지 않아 그만둘 수가 있는데 심적으로만 대하려 하지 말고 실력으로 사태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에 중견기업에 전직, 식품영양과도 인연이 되니 우선 시간제 일이라도 하고 취업과 전공에 합당한 자격증획득에 노력하십시오. 2013년에는 원행의 기운도 있으니 서울에 어넌 경기도로 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2016년 대비 외국어를 꾸준히 해두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9
			9		8			
	7	8	3		6	2	5	
	3			2			4	
6								5
	5			7			1	
	4	7	2		5	6	9	
			1		9			
2								8

	2				9			
9			3	2		4	6	
4		8					2	
	9	3		8				
			1		5			
				6		5	9	
	7					2		3
	3	2		7	1			4
			8				1	

스도쿠 정답

신점(神占) 운세

11월 22일 (음 10월 9일) 김희수 인생상담 02)577-0541

쥐 48년생 배우자 허물엔 눈 감는 게 좋다. 60년생 다 된 밥 쏟지 않도록 조심할 것. 72년생 급하다고 서두르면 일만 꼬인다. 84년생 마음 흔드는 이성이 나타나 가슴이 콩콩~

소 49년생 마음을 나눌 벗이 생겨 야호~. 61년생 금전 문제는 차질이 생긴다. 73년생 변수가 많으니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 85년생 제안이나 발표하면 환영받는다.

호랑이 50년생 고집부리면 불미 자초한다. 62년생 바람 부는 대로 지순하면 편안~. 74년생 공들인 일은 결찬 결실 맺는다. 86년생 내키지 않는 업무는 사양할 것.

토끼 51년생 능력 있는 사람보다 통하는 벗과 함께하라. 63년생 무드라면 운은 열린다. 75년생 어떠한 경쟁수록 과감할 것. 87년생 마음이 안 가는 사람과 동행이 괴롭다.

용 52년생 명보는 선수를 쳐야 효과 좋다. 64년생 사람 얻으려면 마음의 벽 허물어라. 76년생 직장인은 승진하거나 평판 올라간다. 88년생 상사 말 따르면 모든 게 순탄~

뱀 53년생 애쓰지 수고에 칭찬 아끼지 마라. 65년생 걱정한 일은 무사히 넘어간다. 77년생 첩등의 월부터 끄고 시 발도오를 것. 89년생 철석한 마음 달래줄 벗이 나타난다.

말 42년생 마음이 기면 뭘도 가는 격이다. 54년생 변화보다 안심 유지할 것. 66년생 내키지 않은 검투에 고민한다. 78년생 독건은 매일의 실저면 남기는 찰~

양 43년생 열였던 가족의 헌신에 월고 싶구나. 55년생 가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67년생 행동으로 보여주어 신뢰얻어라. 79년생 사소한 일에도 프로정신이 필요하다.

원숭이 44년생 술김의 약속은 후회만 남긴다. 56년생 능력 부러지할 정도록 신경 써라. 68년생 중대한 선택을 하에 앞이 생긴다. 80년생 기회가 있을 때 존재감 마음껏 발휘하라.

닭 45년생 떠나는 사람은 잡지 마라. 57년생 기대했던 자녀가 보답을 한다. 69년생 최근한 성과에 주변 관심 만점이~. 81년생 굿은 일이라고 피하면 더 어려워진다.

개 46년생 믿고 따르는 자녀가 있어서 든든하다. 58년생 구설수 있으니 말을 아껴라. 70년생 채면에 얽매이면 지출만 늘어난다. 82년생 일을 즐기니 능률은 쑥쑥~

돼지 47년생 사소한 의심이라도 면복 마라. 59년생 활무지에 새 희미 돋는 격이다. 71년생 자료 같은 원칭이 많으니 평고할 것. 83년생 연인의 달콤한 말에 귀갓길이 가볍다.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11 What do you want?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이 서포트합니다.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151. 무엇을 원하세요?
152. 커피 한 잔 주세요.
153. 무엇을 드시고 싶으세요?
154. 파이 한 조각 주세요.
155. 이것과 저것 중에 어느 것을 원하세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151. What do you want?
152. I want a cup of coffee.
153. What would you like to eat?
154. Please give me a piece of pie.
155. Which one would you like – this one or that one?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151~155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What would you like to eat, John?
B Please 주세요 me a piece of pie.[154]

정답 give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I don't want a cup of coffee. I want a glass of [milk / water].
2. What would you like to [eat / drink]?

TOEIC Reading ▶ ETS TOEIC Reading Prep Book

01 Employment figures confirm that the nation's economy is growing at its fastest ______ in five years.
(A) payment (B) strategy
(C) pace (D) data

02 Perhaps ______ their greater flexibility, smaller companies may be able to react more quickly to economic fluctuations than larger companies.
(A) even if (B) owing to
(C) not (D) as

01. [illegible]
해설 [illegible] (C) pace를 쓴다
어휘 employment figure 취업률 confirm 동 확인하다 payment 명 지불(금) strategy 명 전략 pace 명 (일·생활 등의) 속도
정답 (C) pace

02. [illegible]
해설 [illegible] (B) owing to를 쓴다. because of, thanks to도 같이 쓸 수 있다
어휘 flexibility 명 융통성 [illegible] react 동 반응하다 fluctuation 명 변동, 등락 even if 접 ~이라도 [illegible]
정답 (B) owing to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5 해결책 제시하기

해결책 제시하기

• 해결책 문장

I will send one of my employees to put the boxes in our basement.
제 직원 중에 한 명을 보내서 상자들을 저희 지하실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I can check the basement and find a large space.
제가 지하실을 확인해서 넓은 공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I'm going to call one of my employees and put them in our basement.
[illegible]

I suggest that you talk with Mr. Smith, who is in charge of the hallway.
복도를 담당하고 있는 Smith씨와 이야기 하시기를 제안 합니다.

• 추가 문장

A garbage pick-up truck will take them away tomorrow.
[illegible]

I'll make sure the problem won't happen again. [illegible]

• 끝인사 하기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give me a call back. [illegible]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about this problem. [illegible]

본 지면은 YBM의 컨텐츠로 구성됩니다 ybmbooks.com 02)2000-0515

21일 밤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2 경기에서 FC서울이 제주 유나이티드에 1-0으로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확정하자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2년만에 '우승찬가'

정조국 결승골… 제주 꺾어 통산 5번째 리그 챔피언

2012년 'K리그 챔피언' 탄생을 알리는 친가가 상암벌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프로축구 FC서울이 통산 5번째 리그 우승을 달성했다.

서울은 2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2 41라운드 제주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36분 터진 정조국의 선제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이겼다.

"제주전에서 우승 마침표를 찍고 싶다"던 최용수(39) 서울 감독의 바람은 현실이 됐다. 승점 90점 고지에 올라선 서울(27승9무5패)은 리그 잔여경기(3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우승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다.

현재 서울과 2위 전북현대 (22승12무7패 승점 78)와의 승점 차는 12점이다. 전북이 남은 3경기를 모두 이겨도 승점은 87점에 그친다. 서울이 전패를 해도 순위는 바뀌지 않는다. 더 이상의 변수는 없다.

시즌 초반 전북과 수원삼성 등에 선두 자리를 내주며 치열한 우승 경쟁을 벌였던 서울은 여름을 기점으로 소위 '물 이 오르기 시작했다.

지난 8월22일 포항스틸러스를 3-2로 꺾고 1위로 올라선 서울은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특히 스플릿시스템이 작동된 31라운드 이후 8승2무1패를 기록하며 K리그 '최강팀'다운 면모를 드러냈다. 이는 그룹A(1~8위) 팀들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이다.

지난 2010년 챔피언결정전에서 제주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던 서울은 2년 만에 리그 정상을 탈환했다. 팀 통산 5번째(럭키금성황소 2회 안양LG치타스 1회 우승 포함) 우승이다.

서울의 전신인 럭키금성이 1985년과 1990년 2회 우승을 차지했고 뒤이어 안양이 2000년 또 하나의 트로피를 추가했다. 서울로 연고를 옮긴 후에도 2010년과 올해 챔피언으로 우뚝 서며 우승 행진을 이어갔다. 이로써 서울은 포항스틸러스, 부산아이파크, 수원(이상 우승 4회) 등을 따돌리고 성남일화(우승 7회)에 이어 리그 최다 우승팀 단독 2위로 올라섰다.

데얀(31)과 몰리나(32) '데몰리션 콤비'는 각각 K-리그 한 시즌 최다 골 기록(현재 30골)과 최다 도움 기록(현재 18개)을 갈아치우며 팀 우승의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 /뉴시스

이시영 국가대표 복서되나

48kg 이하급 선발전 나서… "단순한 기량 테스트 목적"

배우 이시영(30 사진)이 국가대표에 도전한다.

이시영은 다음 달 7~11일 울산에서 열리는 제66회 전국아마추어복싱선수권대회 겸 2013 복싱 국가대표선수 1차 선발대회에 출전한다.

여자 48kg 이하급 경기에 나서는 그는 이번 선발전에서 우승하면 1년 동안 국가대표 자격으로 각종 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얻는다.

백성오 잠실복싱클럽 관장은 "이시영이 7월 전국아마추어 복싱대회 이후 매일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훈련해왔다"고 소개했다.

다만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의 경우 여자 복싱은 플라이급(48~51kg) 라이트급(47~60kg) 미들급(69~75kg) 등 3체급만 출전이 가능하다. 이시영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 복싱 선수로서의 도전을 이어가려면 결국 플라이급으로 체급을 올려야 한다.

백 관장은 "이시영이 7월 대회 이후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 감각도 익히고 기량을 테스트할 목적으로 시합에 나가는 것일 뿐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려고 이번 대회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시영은 2010년 여자 복싱 선수를 주인공으로 한 단막극에 주인공으로 캐스팅돼 복싱과 인연을 맺었다. /김민준기자

지동원, 구자철과 한솥밥?

영국 언론 아우크스부르크로 임대 가능성 제기

잉글랜드 선덜랜드에 있는 지동원(21· 사진)이 구자철과 한솥밥을 먹을 가능성이 커졌다.

영국 지역지인 더 노던 에코는 21일 "독일 아우크스부르크가 선덜랜드와 지동원의 임대를 놓고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선덜랜드를 포함한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 신문은 "아우크스부르크는 선덜랜드에서 입지를 잃어가는 지동원을 1월에 임대로 영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SPN도 이날 "아우크스부르크가 지동원을 눈여겨보고 있다"며 임대 이적 가능성을 전했다.

지동원은 올 시즌 21세 이하(U-21) 팀 경기에 몇 차례 나섰을 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한 경기도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해 임대 이적설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구로다 양키스서 1년 더

다저스와 협상 류현진엔 희소식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 연봉 협상을 벌이고 있는 류현진(25·한화· 사진)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올해 뉴욕 양키스에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일본인 투수 구로다 히로키(37)가 팀 잔류를 선언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21일 구로다가 양키스와 1년 계약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연봉은 1500만 달러(약 162억원)다.

2008년 다저스를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구로다는 4시즌간 41승46패 방어율 3.45를 기록했다. 양키스에서 뛴 2012시즌에는 16승11패 방어율 3.32로 최고의 성적을 남겼다.

그는 최근 지인들에게 "가족이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팀으로 옮기고 싶다"고 말하면서 LA 다저스 복귀설이 대두되기도 했다. 선발급 투수가 필요한 다저스 역시 구로다 영입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구로다가 1년 더 양키스에서 생활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저스는 류현진은 물론 스토브리그 최대어로 꼽히는 잭 그레인키(LA 에인절스) 애니발 산체스(디트로이트) 등의 영입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김민준기자